

최악의 가뭄, 폭염 ... 애타는 農心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한달넘게 전국을 할퀴고 갔다.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민·관·군이 하나되어 가뭄해갈에 온 정성을 쏟았다. 금년 가뭄의 원인과 피해상황, 그리고 쌀 수급전망을 신문보도와 자료를 통해 정리해본다.

〈편집자註〉



남부지방 가뭄피해 극심/비는 언제 오려나 ... 폭염에 타는 農心/목타는 南道 “태풍이라도...” /民一官一軍 “농촌돕기” 비상/가뭄피해지역 급속 北上/...

올 7월 한달내내 신문에서 보아온 머릿기사들이다. 가뭄에 애타 농민들은 태풍이라도 와주길 바라는 심정이 되었다.

한달넘게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운 가뭄은 정말 태풍 덕분에 거의 해갈이 됐다.

『제11호 태풍 브랜던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이 사실상 해갈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가 2일 하오 6시 현재로 집계한 전국의 가뭄면적은 논이 7,913ha(전체 벼 재배면적 0.7%)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밭은 모두 해갈 됐다』(농민신문 8.5)

그러면 유례없는 금년의 무더위와 가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기상청 관계자들은 이같은 기상이변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상확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7월말이나 8월초에 나타나야 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한 세력으로 남부지방에 자리잡음에 따라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면서 남부지방에 장마가 실종되고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것』(세계일보 7. 13)

남부지방은 특히 가뭄피해가 심했다. 가뭄발생면적이 집계되어 구체적인 수치로 보도된 것은 7월중순쯤 부터였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남부지방 밭작물에 한해피해가 늘고있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전남 영암·여천·광양등 13개 시군과 경남 사천·진양·고성·산청등 6개 시군 1,877ha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경향신문 7. 14)

논바다야 갈라지고 가축이 집단폐사하는 등 가뭄피해가 늘어나자 농촌진흥청은 7월13일 「혹서·가뭄대비 농작물 및 가축사양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李榮德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방일선기관에 가뭄으로 인한 각종 피해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용수개발 예산, 양수기 7만대, 군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날짜별 가뭄피해면적 추이

(단위: ha, %)

	논		밭	
	피해면적	비율	피해면적	비율
재배면적	1,115,000	100.0	775,000	100.0
7월17일	36,864	3.3	35,460	4.6
7월21일	68,300	6.1	35,460	4.6
7월24일	126,584	11.4	60,400	7.8
7월27일	121,135	10.9	31,931	4.1
7월28일	130,200	11.7	27,700	3.6
7월29일	127,700	11.5	21,216	2.7
8월 2일	7,913	0.7	해갈	

쌀의 수급실적 추이

(자료: 농림수산부)

	1990	1991	1992	1993
재고량	10,915 천석	14,064	14,870	13,887
생산량	40,958	38,932	37,390	37,023
수요량	37,809	38,126	38,373	38,271
연말재고량	14,064	14,870	13,887	12,639
자급도(%)	108.3	102.1	97.4	96.7

그러면서 장마는 끝났다. 기상청은 18일 「북한지방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소멸, 올여름 장마는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20일째 가뭄이 계속되자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려 농민들의 고충을 가중시켰다.

『전남도내 일모작 논에서 벼잎이 마르는 잎집무늬마름병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 잎집무늬마름병은 8.6ha에 발생해 도내 벼 재배면적 16%가 이 병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고 ... 충남도의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률이 식부면적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도내 병충해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더위에 강하고 습도가 높을수록 잘 번지는 이 병이 44,446ha에 발생해 지난해 26,957ha보다 64%가 늘어났다』(한겨레신문 7. 21)

가뭄피해는 수그러들지 않고 중부지방으로까지 확산돼 갔다. 7월이 거의 다 지나가서야 시원스럽지는 못해도 반가운 비가 내렸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뀐 태풍 윌트의 영향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영호남지방에 30~130mm의 단비가 내려 영남지방의 해갈에 큰 도움을 주고 ... 그러나 가뭄피해가 특히 심했던 호남지방에는 최고 39mm밖에 내리지 않아 해갈에는 크게 미흡했다』(경

향신문 7. 28)

농림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7월 29일 현재 전국 논외의 가뭄발생면적은 단수 82,300ha, 균열 42,900ha, 고사 2,500ha로 총 127,700ha로 집계됐다. 또 밭작물에서는 콩이 6,154ha, 고추가 5,976ha, 채소류 9,086ha로 총 21,216ha로 나타났다. 26,27일 내린 비로 피해면적이 다소 줄었으나 태풍 윌트가 소멸되자 7월28일부터 다시 피해면적이 늘어나다가 태풍 브렌던의 영향으로 8월2일 가뭄은 해갈됐다.

그러나 1991년을 고비로 쌀의 자급도가 100%를 밑돌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금년의 가뭄피해가 주곡인 쌀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다행히도 올 벼농사는 목표량을 다소 넘어서는 평년작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이삭이 팬 벼는 전체 벼재배면적의 72%를 넘어섰으며...현재까지의 생육상태를 감안하면 올해 벼농사는 최소한 정부가 올해 설정한 생산계획량 3천 530만석 보다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일보 8. 17)

어쨌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 이같은 기상재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농약정보**